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朴대통령 대면 조사와는 별개”... 입건된 나머지 삼성그룹 임원들 신병처리 방향도 같이 결정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13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와 무관하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나머지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반면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기한을 고려했을

때 빠른 시일 내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청와대 측과 접촉이 없다”며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어 특검팀은 지난달 16

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직·간접적으로 도왔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모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3주간 보강 수사를 거친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또 대한승마협회 회

장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도 함께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필요할 경우 이들의 대질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들의 혐의 내용, 진술 태도 등과 관련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지난번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그때 말하겠다”며 “태도 변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뉴스시

천정배 “지역평등을 국정목표로” 군산조선소, ‘트럼프’ 식 해법 제시

아전 대선주자로 떠오른 국민의당 천정배 후보가 13일 오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마의 변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천 후보는 “지역차별과 불균등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지역평등을 국정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현행 선거제와 대통령제 권력구조는 영남패권을 위한 것”이라며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지역은 그동안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특히 전북은 호남에서도 더 배제되어 왔다”면서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지역평등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 식 해법 추진을 제시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은 사회적 책임과 군산 지역경제를 고려해 가동중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를 철회시키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정몽준 이사장과 직접 만나 트럼프 식 협상을 진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에서 이를 외면할 경우 “군산조선소의 무조건 존치를 조건으로 현대중공업과 담판 지을 것”이라며 “군산에 단 하나뿐인 도크를 폐쇄하는 것은 군산 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천 후보는 간담회를 마치고 군산 오식도동 산단단지공단으로 이동, 산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경찰에 둘러싸인 박지원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국민의당 ‘전북지역 순회 최고위원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박지원 대표가 회의장 밖에서 혐의하는 장성민 전 의원의 지지자들을 피해 지하 계단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이날 장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장 전 의원의 임명을 보류한 국민의당 지도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양성빈 도의원 “범죄예방 환경조성 통해 예방을”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제340회 임시회에서 각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공공간에 범죄예방설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원, 거리 등의 공공공간과 건축물 등 도시환경 전반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발의 조례의 적용대상은 전북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건축물과 공공 공간조성사업, 신도시 및 도시재생사업, 농어촌환경정비사업 및 전북도 건축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사업으로 공공기관에서 조성하는 대다수의 공간환경설계 시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되게 된다.

양성빈 의원은 “물지마 범죄 등 각종 사회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골목

이 많고 노후된 구도심 및 공·폐가 밀집 지역의 경우 생활환경자체가 오히려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가 발생하고 난 후 범인을 빨리 잡는 것보다 아예 그 범죄가 일어날 수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통해 도민들이 범죄불안감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손학규 의장, “전북 경제 새관 짜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13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손 의장은 “패권교체가 아닌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진짜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대한 기대가 높다. 반드시 승리하자”며 호남의 민심을 전하고, 대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손 의장은 전북의 열악한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전북경제의 새관을 짜야한다고 밝혔다.

손 의장은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2015년에 거래된 전국 시도 주택가격 평균은 2억 5087만원이다. 전북은 골짜기에서 세 번째인 1억 3670만원이다. 거래금액을 살펴보면 전북은 1조 985억원으로 전국 대비 1.5% 수준에 불과하다. 호남 전체로 확대해도 4.8%에 그쳤다. 전북과 호남은 인구비중이 10.1%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반해 영남은 인구비중이 25.8%인데 부동산거래액이 23.4%이다. 호남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며 “2015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평균이 2.8% 성장했는데 전북만 유일하게 0% 성장을 기록했다”며 각종 지표를 제시하며, 전북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설명했다.

손 의장은 “전북경제는 새관문제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고민해야 한다. 정치의 새 관을 짤 뿐만 아니라 전북경제의 새관을 짜야 할 때”라며, “전북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김관영 의원, ‘이랜드파크 방지법’ 발의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이랜드파크 방지법’이 발의돼 주목된다.

13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강제근로·중간착취·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분의1까지 처벌이 가중된다.

그동안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 체불 임금 신고액은 1조428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신고 노동자 수는 32만5430명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근로·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이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황과 함께 노동시장 불법 행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김관영 의원은 “두 번 다시 이랜드파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의 문턱을 넘길 바란다”면서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더 이상 사업주가 임금을 착취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악질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이호근, 고창 대형버스 세차시설 도입 협약 이끌어

고창군과 고창관광버스 연합회 그리고 대한고속이 13일 대한고속 고창 영업소에서 대형 버스 세차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약식을 가졌다.

그간 고창군에는 대형버스 세차시설이 없어 주택가나 하천변 등에서 세차를 해 환경오염이 우려됐다.

이에 이호근 도의원은 고창군 소재 관광버스, 일반버스, 학교버스, 시내버스 등 대형차량용 세차시설 도입을 위해 관련 업체 설득 끝에 대형 세차시설 도입을 이끌어 냈다.

이호근 도의원은 “대형버스 세차시설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했다”며 “겨울과 여름철에 버스기사님들의 어려움을 해결 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실을 맺는 협약식은 사업자간 상생의 발판이 되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ARS 1577-8179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